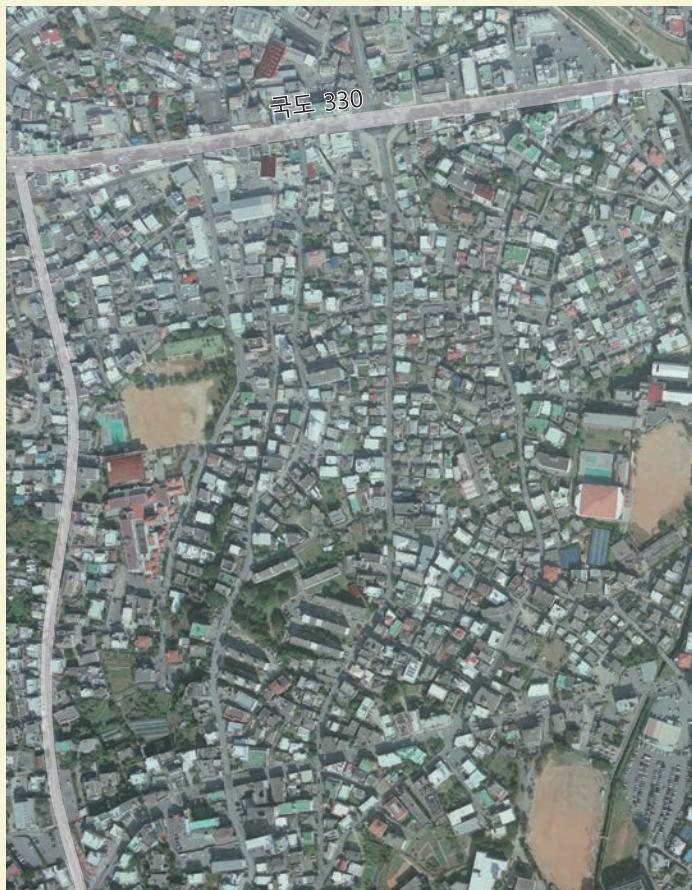


## 아케다의 위치



2010년 아케다 마을 모습



### 오키나와시 문화재 지도 아케다

2017년도 발행  
발행 오키나와시 교육위원회 오키나와시립 향토박물관  
ZIP 904-0031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 우에치 2-19-6 오키나와시 문화센터 3층  
TEL : 098-932-6882  
FAX : 098-933-6218

Source: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website

## 아케다



## 오키나와시 문화재 지도



## 아케다 마을에 대하여

아케다는 방언으로 “아기다”라고 합니다. 1721년의 역사 자료인 “중산 전신록(中山傳信錄)”에 마을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763년의 “규요(球陽)”의 기록에 의하면, 옛 마을의 땅은 폭풍우 피해가 잦아 물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거주지도 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넓고, 물도 많으며, 폭풍우 걱정도 적은 현재의 장소로 마을 이전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허락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쟁 이전에는 논과 밭이 넓어 마을에서는 벼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또한 방목지로서도 이용되었는데, 류큐 왕부 시대에는 이 곳에서 키운 말 “구이토”가 유명하여 왕에게 현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 전쟁 후, 가마라를 중심으로 무로카와, 고에쿠, 아카다 지역은 피난민 수용소(캠프 고자)가 설치되어, 2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예전의 논밭 지대에도 이주자가 늘어나 주택지가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복귀 전후까지 아케다의 큰 도로(국도 330호)는 가구점과 자동차 수리 공장, 철공소, 목재소 등이 나란히 들어선 생산업이 중심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 1945년 아케다 마을 모습



Aerial photograph taken by US military forces ON24146 019-2 (property of the Okinawa Prefectural Archives)



### ① 구시바루카

아케다 마을이 현재 위치로 이전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아케다의 우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며, 후루지마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음력 9월 길일에 우물 기원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 ② 아케다 우타키 성지

이 우타키 성지에는 세 종류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배례하는 곳을 향해서 왼쪽에는 불의 신, 중앙에는 우타키 신, 오른쪽에는 천지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에도 향우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 ③ 아가리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용하는 물을 길고 이름을 짓는 우물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음력 1월 1일 설날 아침 일찍 새해의 첫 물을 길기 위해 갔습니다.

## 칼럼

### 에고쿠 댐

오키나와 어린이 왕국에 있는 댐은 어린이 왕국이 개원되기 전에는 에고쿠 댐이라고 불리었고, 195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오키나와시 아케다의 논에 물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댐입니다. 아케다 마을 사람들이 에고쿠 댐에서 간이 수도를 끌어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 아케다의 논은 주택지가 되었고 에고쿠 댐의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아케다에는 주택의 구석진 곳에 수로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Goeku Dam in 1957  
(from Goya no Konjaku Shashinshi)

A former ditch found in the yard of a private house.  
A concrete structure with a width of approximately 50 cm.

Pictures From "Tochi to Ikeru—Okinawa no Inasaku"



### 우비나디

우비나디; 오키나와 여러 섬에서 행하고 있는 주술. 마을에서 소중히 여기는 우물에서 퍼 올린 물을 담은 그릇에 중지 손가락을 넣어 적신 후 이마를 세 번 만집니다. 마귀를 쫓는 것과 건강 기원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 때, 할머니가 이마에 물을 적시어 주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비나디입니다. 설이 아닐 때에도 우비나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우1>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소중히 여기는 우물에서 퍼 올린 물로 우비나디를 했습니다. 아기의 생명력을 높이고 산후의 정화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경우2> 결혼식 !

현대와 달리 옛날에는 자택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첫 순서에 부부의 연을 깊게 하는 의례로서 우비나디를 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평소 조금 섬찟한 느낌이 드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 마귀를 쫓는 의미로 우비나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침으로도 대신하기도 합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



### ④ 나카누카

나카야마와 아가리위 일족이 이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⑤ 이리누카

이 일대는 자가루(이회암) 토양으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설탕 가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설탕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우물이었습니다.



### ⑥ 우마누쿠 (무라야· 가미야)

건물 1층의 위패를 모신 방에 들어가면 왼쪽에 아궁이와 불의 신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옆의 선반에는 두 개의 향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 ⑦ 야마야지의 우물

야마야지라는 호를 가진 인물이 판 우물입니다. 1800년 대 후반에 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